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입니다

☞ 19면에서 계속

부숴지고 죽고 이러는 거는 모르시죠? 아니, 생각을 하면서도 행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런 줄 번연히 알면서도.

그러니 그러한 불바퀴 속을 뛰어넘질 못해서 이승 저승을 왕래를 못 하니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열반의 맛을 알아야지, 만약에 그 맛을 모른다면 죽어서도 그 차원밖에 안 돼요. 지게꾼 하던 사람은 지게꾼으로만 살게 돼 있고, 어느 회사의 종업원이라면 종업원, 기술자라면 기술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 과학자라면 과학자, 자기 분야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모르면 안 되죠.

모든 천체가 한마음에서, 즉 말하자면 사랑도, 자비도 과학도 물리학도 천체물리학도, 천문학도 지리학도 의학도 모든 게 이 한 보배, 한 가운데서 다 부풀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LA지원 개원식에서 하버드 박사가 "스님은 그 한 군데서 그렇게 나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님으로 인해서 내가 연구를 더 깊이 하게 됐습니다."라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알래스카에는 박사가 한 댓 분 되는데요, 그 박사들은 심리학이니 의학이니 아무튼 여러 분야에서 참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전공 분야에서 모두 마음으로 하니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납득이 가는데 왜, 여기 사람들은, 허허허, 그러냐 이거죠. 요만한 거 하나라도 철두철명하게 지켜나가고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더 많더군요. 여기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히려 비웃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걱정이죠. "네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참 흉내 꽤 잘 내는구나!" 이러고. 그런데 내 생각에는 자기를 좀 돌아다봤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보지 않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메스껍게 생각하고 남을 깔보는 마음, 아상, 아만 그런 것이 많으니 바로 자기를 죽이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우린 풀 한 포기도 업신여길 수가 없죠. 여러분 배 속의 그 촌충이 바로 하나의 증명이 된 셈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이 인간까지 왔다는 증명을 해준 겁니다. 오장육부의 그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는 자체를 보십시오. 그게 운행을 해 줘야만이 여러분이 움죽거릴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데다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또 살 수도 없죠. 그 지수화풍이 아니라면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할 수도 없고 전파가 오고 가지도 않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땅바닥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공기도 없습니다. 모든 게 두절되고 말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옛날에 가져온 그 비극적인 역사 이런 거를 말끔히 씻어 버리고 좀 새로이 새 맛이 나는 역사를 가져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함부로 내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떤 원한이 있더라도 일일이 요렇게 찍어서는 열쇠를 받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세계적으로 너무 높은 거는 낮추고 너무 낮은 것은 올리고 하는 그 마음, 한마음의 도리에 지혜로운 폭넓은 마음, 그런 큰 그릇의 마음을 낼 수 있는 그 뜻을 갖는다면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세계 평화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북통일도 될 수 있고요.

마음을 다루는 일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을 다루면 몸도 다룰 수가 있거든요. 세계를 움죽거리게 하는 것은 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듣고 보고, 또 인공위성을 띄워서 두루 하고, 전파를 통해서 다 듣고 이러면서도 그걸 파악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워서 자꾸자꾸 지금부터라도 그냥 놓는 작업을 하신다면 그 뜻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 하나하나.

그렇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면서 가정과 모든 데서 화목을 깨트리지 마시고 그저 자녀들을 기르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아휴,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었을꼬.' 하고 후회를 하면서 아마 착한 2세들이 될 겁니다. 이런 속담도 있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요. 그것처럼 질질질질 물이 새니깐 남들을 모두 얼리고 빙판을 만들고 그러니 전부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집 한 집, 한 사람 한 사람이 직결이 돼 있고 가설이 돼 있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으셨구나. 우리들이 관해 보고 우리들이 관해 듣고,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이름 아니냐. 우리들을 떠나서 관세음보살이 어딨으며 지장이 어딨겠느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법당에 오더라도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둘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무와 나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들을 서로 이어서 열매를 맺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해서 말입니다. 저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가 이쪽 건너편의 나무 한 그루와 사랑을 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 아시죠? 이것이 바로 전파 아닌 전파죠.

마음을 이어 가는 전파인데, 지금 남편이고 애들이고 그렇게 속을 썩여도 '허허, 주인공은 전력이 둘이 아니니까 불 들어오는 거는 전력만 있으면 다 들어오겠지.' 하고 맡겨 보세요. 너하고 나하고, 아들이 다 자식이다, 이렇게 모두 알고 있는 것이 가설이 아니냐. 그럼, 네 주인공과 내 주인공이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게 그저 당신밖에는, 둘이 아닌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하겠구나 하고 맡겨 놓는 작업을 할 때 벌써 다들 전파가 되거든요. 불이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인등이 켜지게 돼 있거든.

내 마음이 스스로 밝아지니 스스로 자기가 자길 다스리게 되죠. 이 세상을 나쁘게 보는 것도 자기가 나쁘니까 나쁘게만 보거든. 그러니 나쁘게 보지 않고 '아하, 이런 거로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좋게 돌리면 좋게 돌아가게 되죠. 그럼으로써 가정에도 화목이 오고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나가서도 남들을 사랑하게 되고 남들 보는 눈이 달라지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면 모두가 천국으로 보이지만 여러분이 모두 악으로써 병이 들면 모든 게 악으로만 보이고 도둑놈으로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합니다. 도둑놈이면 어떻고 도둑놈 아니면 어떠랴. 나 걸음 걷는 거, 다스려 가면서 올바로 진실하게만 꾸준히 걸어갈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만났던 사람, 인연 됐던 사람이 스스로 언젠가는 착해지고 언젠가는 그런 걸음을 다 떼어 버리거든요. 더디고 이르고 그뿐이지.

만날 했던 소리 하는데도 이렇게 찾아주시니, 그저 '저 못난 스님도 나 못난 거려니.' 하고 찾아주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저 못난 사람들끼리 못났든 잘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거지든 부자든 그거를 떠나서 우린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니 모두 한마음으로 뭉쳐서 공부해 봅시다. 또 내부적으로 한마음으로 틀어 놓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탈이 되죠.

이 몸속에 있는 것도 아주 간단하게 쳐서 십오억이라고 한다면 벌써 오십억이 되고, 오십억이 된다면 그 속에 또 속이 있고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 여러 의식들을 한생각에 전부 이끌어서 바로 내 한 마음이 돼 준다면 몸 건강한 거야 뭐, 이를 데가 있겠습니까? 가는 날까지는 틀림없이 건강하게 살 테죠. 가는 날까진요. 이 몸이 헤지면 또 다른 걸로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어느 선사께서 어느 하인으로 사는 사람의 시주를 받고서 너무 감탄해서 그만 그 이튿날에 몸을 바꿔 줬죠. 신라 때 불국사를 지은 김대성이처럼요. 그래서 금방 몸을 갈아서 정승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 가지고 관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건져 주게 했더래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지금 요 몸을 가지고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몸 가졌을 때 이 도리를 다 배워야지 이 몸이 없으면 공부도 못 해요. 아까 영화 얘기 한 것처럼 그 짝이 나죠. 살아생전에 나투고 응해 주고 그렇게 벗어나서 불바퀴를 굴릴 수 있어야 바로 그게 이름해서 열반이지, 그리고 자유인인 것이지 아, 살아서 그걸 못 벗어나는데 죽어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네?

그러니 언제나 자기 자신을 떠나서 맹종하지 마세요. 부처가 있더라도 그저 자기 몸과 같이만 생각하세요.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 불쌍한 것같이만 생각하면 돼요.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나같이만, 못났든 잘났든 나같이만. 그렇게 모두 둘로 보지만 않으신다면 모든 게 자비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실천하고 행하실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죽는 걸 본다 하더라도 길 오다가 다 한생각에 그냥…. 보는 순간이지 그거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다고. 보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찰나지. 그러니까 무슨, 저걸 살려야지, 건져 줘야지 그런 거 생각할 사이도 없다고요, 자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으로 인해서 나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그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나는 저 산천초목, 풀 한 포기, 물이 흘러가는 걸 봐도 '하! 너희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이 도리를 알았을까. 너희들이 다 스승이고 돌 하나 스승 아닌 게 없구나. 천칠백 공안이라고 예전에 선지식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천칠백 공안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화두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내가 몸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라는 걸 아시고, 내가 나온 게 수박이라면 그냥 무조건 잘라서 잡숴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그 씨를 또 심어서 모든 중생들을 먹이고도 되남을 테니깐요.

그럼 오늘 부처도 중생도 둘 아닌 도리라는 그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이라크 문제들을 가지고도 더 퍼지지 않게 더 이상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마음을 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국민 된 도리요, 세계적인 인간의 도리요, 한마음의 도리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월 20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내가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화두라는 걸 아시고
내가 나온 게 수박이라면 그냥 무조건 잘라서 잡숴 보세요.
그러면 그 씨를 또 심어서 모든 중생들을 먹이고도 되남을 테니까요.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